

“어르신 입장에서 어르신을 위한 활동 전개 약속”

김재근 홍천군의장 인터뷰

김재근 홍천군의원이 7월 제8대 홍천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군의장직을 맡았다.

홍천실버신문은 지난 13일 김재근 홍천군의장을 만나 노인정책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 당선을 축하한다. 향후 의정 방향은?

우선 제8대 군의회가 힘차게 출발 할 수 있도록 신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8대 의회에선 더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며 의회의 주된 기능이자 본분인 군정부와의 상생과 견제의 역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천의 거시적이고 양적인 발전을 기본으로 이제는 사회적 약자까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홍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무엇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들여다보고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열정을 다하겠다.



◇ 김재근 홍천군의장(오른쪽)이 홍천실버신문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어르신들 최고 관심사,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 전국에서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은 홍천 만들기

- 의원 당선과 더불어 의장직을 맡았다. 소감은?

군의원 당선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회의 대표역할을 하는 막중한 직무를 맡게 되어 동료의원들의 지지에 감사하면서도 하루하루 책임을 실감한다.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군의회를 대표하며 단합된 의정을 만들기 위해 달리다보니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새롭게 첫발 걸음을 내딛는 제8대 홍천군의회 수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동료의원들의 지지와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소신 있게 일하여 신뢰 받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홍천군의 노인인구가 전체 23%를 넘는 현재, 어르신들과 같이 약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지역구를 떠나 홍천군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약으로 내세운 노인 회관 건립이나 1-STOP 회관 건립도 그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실질적인 근린정책이라 생각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정책과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다.

- 치매어르신들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있는지?

치매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가장 효과적인 증상억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이 지지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독려하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중요하며 홍천에 특화된 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어르신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즐겁고 유쾌한 일상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행사와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치매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전문병원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김 의장이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에 대한 방안은?

요즘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시는 어르신 분들의 사회적 노동참여 욕구가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르신 한 분이 도서관 한 채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월이 쌓아준 연륜과 경력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

- 끝으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국에서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은 홍천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어르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깊이 새기며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한다. 어르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8대 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더욱 힘을 내어 어르신의 입장에서 어르신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

허남영 기자

◆ 홍천군노인복지관 8월 행사일정

일시	장소	내용
2018.08.03.(금) 13:00~	홍천군노인복지관	KB국민건강총명학교 입학식
2018.08.08.(수) 10:00~	홍천군노인복지관	KB국민건강총명학교 치매서포터즈 양성교육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04 - 경로당 탐방

05 - 유적지 / 전설

06 - 다문화가정이야기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08 - 독자기고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홍천군노인복지관 하반기 운영 계획

홍천군노인복지관 신축동 10월부터 본격 운영 돌입

홍천군노인복지관 신축동이 8월 5일 준공으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축동은 현재 본관 앞에 위치하여 지상 2층(연면적 396.52㎡)으로 건축되어, 1층은 면적 169.47㎡로 당구장으로 활용되며, 2층은 면적 227.05㎡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소강당 역할을 한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라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축동 건축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축동 운영과 더불어, 물리치료실 이전, 기존 당구장에 타 프로그램 운영 등 앞으로 운영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노인복지관은 하반기인 8월부터 KB 국민건강 총명학교가 진행된다. 총명학교는 KB금융그룹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치매고위험군 25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이 12회기 진행된다. 더불어 청소년 치매서포터즈 양성으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1-3세대 통합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신축동

당구장, 소강당 운영... 욕구에 걸맞는 프로그램실 개편 다양한 사업으로 편안하고 친근한 복지관 만들기 다짐

더불어 홍천군 주최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8월부터 실버바리스타 실전반이 15회기 운영된다. 복지관 본관 1층 휴카페가 위치하고 있으며, 실버바리스타 수료 후 실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홍천실버신문 기자양성반 또한 8월부터 진행되

다. 홍천실버신문 기자단의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기사작성론, 인터뷰기법 등 현직 기자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홍천실버신문 기자양성반은 총15회기 진행된다.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이 11월에 새롭게 진

행된다. 홍천군은 농촌지역임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시기를 농한·번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신축동 건축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현재 50여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 하며, 수강신청은 10월 진행된다.

이에 자월 관장은 “신축동 건축 및 운영으로 본관, 별관, 신관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보다 가깝고 친근한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며, 홍천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강원지역예선전 기타메아리반 입상



‘2018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강원지역예선이 7월 10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홀에서 열린 가운데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기타메아리반(이기영 외 15명)이 출전하여 27개 팀 중 10위 안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실버바리스타, 실버쿠키반 수료식 진행



홍천군 주최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실버바리스타 기초반과 실버쿠키 기초·실전반이 15회기 종료된 가운데 7월 12일, 18일 참여자 24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귀농·귀촌인 이야기(18) 남편 월천리 용금옥·신용성 씨 부부

구절초 꽃차로 멋지고 보람된 일 찾아 미소가 절로 행복

구절초가 3000평 넓은 땅에 푸른 초원을 이루고 있는 언덕위의 집은 마치 외국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하립골’이란 꽃차를 만드는 농장이다. 홍천이 고향인 용금옥(61) 씨와 남편 신용성(63) 씨는 오래 전에 홍천군 남면 월천리에 땅 5000평을 마련해 두었고, 그 땅에 16년 전부터 구절초를 심었다. 언덕 위에는 테라스가 넓은 외국풍의 주택 2동이 나란히 있다. 멀리서 보기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모습이 연상되는 집이다.

이들은 서울의 대학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고 자녀 2명을 두었다.

부인은 학원 강사로 생활하면서 평소 야생화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며 식물원을 만들 꿈을 가졌었다. 이들 부부가 꿈꾸는 농장지로는 모든 조건이 좋은 홍천으로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가깝고 청정지역이며 땅값도 저렴하여 일찍 땅을 마련했고 처가가 있는 홍천이므로 남편이 좋아했다. 하립골 농장을 일구기 시



◇ 용금옥·신용성 씨 부부는 홍천군 남면에서 하립골 꽃차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관리가 가장 고된 부분, 남편 의지로 많은 도움 얻어 야생화 관심 많아 꽃차 카페 운영, 꽃차분야 일인자 등극

작한지 이제 14년으로 접어들었다. 구절초로 꽃차, 구절초환, 즙, 또 조청까지 생산·가공·판매하는 6차 산업이다. 구절초는 항균력이 있어서 별다른 해충이 생기지 않아 약도 뿌리지 않는 친환경이며, 주변의 산과 들에 있는 야생화도 친환경으로 많은 종류의 꽃차도 만든다.

주택 1동에는 꽃차를 전시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꽃차 카페가 있다. 수백 가지의 예쁘고 예쁜 꽃들이 작은 몸집으로 앙증맞은 유리병 속에서 다시 피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꽃차는 꽃이 만개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채취하여 씻고, 찢고 말리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엔 작업자의 노하우에 따라 맛과 향과 빛깔까지 달라진다.

용 씨는 꽃차에 대하여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꽃차를 만들기 시작하여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당당히 꽃차 분야의 일인자가 되었다. 그간 꾸준한 노력과 자기개발이 있었고 SNS 활동을 통하여 꽃차를 알리는데 주력했기 때문이

라고 한다. 지금도 많은 시간을 쇼핑몰 고객관리에 할애한다. 이제 ‘하립골 꽃차’는 강원도의 꽃차 대표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8월말에 열리는 26회 중국 광저우 박람회에 강원도 대표기업으로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판매는 거의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인지도가 있어서 판로에 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을 만큼 고객층이 확보되어 있다.

수입도 어떤 농작물보다 좋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취미로 만든다면 좋겠지만 사업으로 하려면 판로개척이 가장 어려운 일이므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십여 년 간을 주말에 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넓은 땅을 돌보며 가꾼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고 회고한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농협은행에 다니던 남편은 자신에게 농사꾼 같은 힘든 일을 시키지만 않는다면 허락하겠다고 했지만 4년 전 퇴직한 남편은 힘든 일도 함께 하며 서로에게 힘과 의지가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농장 관리라고 한다.

농장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웃에서 농약 성분이 날아와도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 주변엔 농사짓는 땅이 없도록 땅을 확보해 뒀다. 차는 친환경으로 생산될 뿐 아니라 제초작업도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고된 부분이라고 한다.

7월의 녹음이 짙은 산천과 집주변이 구절초로 녹색의 화원을 이루고 있는 집 앞마당에서 첫딸(33)은 2년 전 하우스웨딩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 ‘문학사상’을 통해 소설가로 등단했다고 한다. 그는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만들어가며 더 풍성한 삶과 내일을 위해 준비해왔다.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문예창작으로 바꿔 석사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강원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그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느리게,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하자고 마음을 먹고 남편을 격려하며 자신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까지 고되고 먼 길을 왔지만 보람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린 꽃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더 멋지고 보람된 인생을 찾았으므로 그녀는 행복하다. 그리고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띠었다.



김순화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 (50) 서면 어유포리

노인복지증진 사업 모범으로 표창, 우수 경로당 자랑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경로당은 현재의 건물
이 있기 전 마을회관과 어유포리 사무실로 사용
되다가 1980년 경로당을 준공했다.

김명환(105) 초대회장을 거쳐 현재 8대인 최
승률(72) 회장을 비롯해 남자 31명, 여자 29명
총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은 농번기라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 농한
기에 진행하던 걷기운동, 민요, 노래교실, 건강
체조 등이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강원대학교
재활센터에서 주관하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월1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로당 바로 옆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해있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되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모범이 되어
2007년 10월 2일 홍천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홍천군 경로당 주요 업무실적 평가에
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장
표창을 받아 타 경로당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서면 어유포리 경로당(회장 최승률·앞줄 왼쪽 두번째)

유일하게 노동서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복노일에
있던 것을 최종의 시조로 현재의 최 씨 집성촌
으로 옮겨와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이 종친회에
서 관리하고 있다.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이번 가을 단풍구경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최 회장은 “실내에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는데
조속히 설치가 돼서 회원들 건강에 도움이 됐으
면 좋겠다.”고 했다.

회원 중 남자 3명, 여자 9명
총1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번기에 일자리가 많
길 바랐다.



안태수 기자

마을 행사에서 주변청소와 음식장만 등 손수 활동
회원들 건강 위해 경로당 내 운동 기구 설치 필요

회원인 박운영(96)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
께 생활하며 바쁜 농번기가 되면 일손을 돕는다
고 한다.

또한 반순자(96) 씨는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부지런하여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
여 회원 간 모범이 되고 있다.

서면 어유포리는 고기가 많이 있는 포구라고
하여 옛날에는 뗏목이 다니면서 주막집이 형성
되어 있었다. 최 씨네의 집성촌으로 홍천군에서

또한 홍천군 향교의 작은 분교인 노동서원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후학들의 강의와 체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천군 팔봉산은 봄과 가을 당산제가 진행되
는데 경로당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변의 청
소와 많은 내방객들의 음식 장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로당은 봄과 가을 꽃구경과 단풍구경을 간
다. 여행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돈독히 하고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최승률	72	농업
부회장	윤병두	72	숙박업
감사	조성우	76	농업
사무장	최충현	65	농업

☎ 033-434-0244

KB 총명학교 치매선별검사 진행



KB 국민건강 총명학교 운영에 앞서 7월 18일 참여자 선별을 위해 홍천
군보건소 연계로 치매선별검사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홍천여고 치매예방프로그램 서포터즈 위촉



KB 국민건강 총명학교 청소년 치매서포터즈 양성교육이 7월 25일 홍천
여자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하여 진행됐으며, 청소년 치매서포터즈로
위촉됐다.

유적지 삼봉약수

탄산·철분 함량 높아 빈혈에 효험 있는 삼봉약수



2011년 1월 13일 천연기념물 530호로 지정된 삼봉약수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삼봉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다.

삼봉은 가칠봉, 응복산, 사삼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수터는 이 봉우리들의 대각선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약수는 토양에 흡수된 물이 암설층을 통과하며 무기물을 용해한 후, 계곡 가장자리

쪽에 있는 지름 25cm 규모의 원형 우물에서 용출하고 있는데, 약수의 생성 과정이 전형적이고 탄산과 철분의 함량이 높아 주목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실론약수'라 불린 삼봉 약수는 철이온, 탄산이온 이외에도 다이탄산이온 등 15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과 당뇨, 위장병, 신경쇠약, 피부병, 신장병,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오랜 세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주변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숲이 울창하여 홍천군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이기도 한 삼봉약수는 요양지로도 각광을 받아 주변으로 장기 치료자들을 위한 산장도 구비되어 있으며, 약수 관리를 위한 입장료를 받고 있다.

박영권 기자



전설 내면 살둔계곡

옛날 단종 복위를 꾀하려다 마을로 형성된 곳



계방천과 자운천이 어우러져 만든 살둔계곡은 원시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입구부터 하늘을 가린 원시림에 둘러싸여 있는 별천지다.

한자로는 생둔이라고 하며 삶둔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살둔계곡의 물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열목어가 서식하는 1급수를 자랑하

고 있다.

봄에는 기암괴석과 철쭉과의 조화로 경관이 수려하며, 물가 주변에는 바위들이 많다.

옛날에 단종 복위를 꾀하던 아들이 숨어들면서 마을이 최초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에도 일곱 군데의 피난처인 삼둔사거리 중 한곳으로 전하고 있다.

난리를 피하고 화를 면할 수 있는 곳 삼둔사거리가 모두 살둔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다.

살둔계곡은 때 묻지 않은 원시림이다. 이곳에는 39호가 살았고 울전분교가 있었다. 재산목록 1호가 되는 소를 집집마다 길렀고 주식은 옥수수, 감자, 콩 등이었다. 생존이 어려워 주민들은 이곳을 다 떠났고 현재에는 펜션과 야영장을 운영하는 4호만 살고 있다. 장에 가서 생필품을 구매할 때는 40리 되는 산길을 걸어서 다녔다. 한 때는 내면 17리에 초등학교가 리마다 있었고 지금은 4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살둔계곡 물은 인제 내린천으로 흘러 소양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서울시민의 식수와 생활용수가 되었다. 살둔 거리는 유일한 국민휴양지로 펜션과 내린천 휴게소는 한 국에서 제일가는 명소가 되었다. 이곳은 서늘하여 여름 휴양지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광명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49) 홍천군 홍천읍 이경순(55) 씨

어려움 극복하고, 직장일 농사일 다 잘해 ‘일로 승부해요!’

“한국 와서 고생한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중국에서 시집와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에 살고 있는 이경순(55) 씨는 “시집와서 관광도 못 다니고 일만하고 살았다.”고 했다.

그는 중국 요녕성 개원시에서 아버지 이철성(78) 씨와 어머니 권일순(사망) 씨의 2남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부모는 농사를 지었다. 경남 밀양이 고향인 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살기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다 돌아오지 못해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 외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개원에서 광주리, 채반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5년간 다닌 후 잎담배 건조 가공하는 공장에 3년을 다녔다. 그 후 식당을 운영하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 집안일을 했다.

당시 어머니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한국 사람한테 시집가 잘살아라!”고 했다. 조선족학교를 다녔지만 일상생활에선 중국어를 사용해 한국어는 잘하지 못했다.

1994년 4월 8일 이모의 중매로 개원에서 남편(안동주·67)을 만났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이모부가 남편을 단독으로 만나 몇 가지



◇ 이경순 씨는 100평의 하우스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

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겨울에는 산 불진화대 근로자로 일하며 농사도 겸하고 있다.

1996년 3월 17일 홍천읍내 복지회관에서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 시집와서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3식구가 살았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며 다른 며느리들에게 보다 잘 대해주었다.

잘 짓는 박사!” 라고 했다.

처음 시집와서는 남편의 잦은 음주로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살아줘서 사는 게 즐겁다. 또 중국의 남동생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2003년 2월 23일에는 친정부모를 한국으로 초대해 홍천읍내 원앙회관에서 회갑잔치를 해주는 등 처가에 신경 쓰며 잘해주고 고맙다고 했다.

그러나 시집와 친정을 몇 번 못 갔고 정작 할머니와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는 비자관계가 여의치 않아 고향엘 못 갔다. 2011년 친정아버지를 초청해 함께 고성통일전망대를 다녀온 것 외에는 한국에 와서 놀러 다닌 곳도 없다.

작은 남동생은 중국에서 중등교사로 일하고 있고 큰 남동생도 중국의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나와 군산에서 10년째 회사에 다닌다. 외동딸(안수진·25)은 통역도 하며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직장커플로 사내결혼해서 광명시에 사는데 사위가 베트남 출장이 많고 딸네 가족이 곧 베트남에 파견근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서 왔다고 역센 여인으로 평가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힘들었다.”며 “일 자리를 찾아 면접 볼 때도 차별 당하고 불이익 받아 속상했지만 일로 승부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살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했다.



이옥희 기자

하우스 고추농사 우수사례, 남편 농사 잘 짓는 박사 가족건강과 화목바라고 시간 내서 여행 다니고 싶어

물어보았다. 당시 남편은 중국어를 몰랐지만 서당에 다녔던 경력으로 한자를 잘 써서 성심껏 대답했고 그것이 이모부의 눈에 들어 상당한 실력자로 인정받아 적극 결혼을 권하게 됐다.

1994년 10월 28일 한국에 왔다. 김포공항에서 처음 본 한국은 잘사는 나라 같았다. 그러나 남편의 집에 도착해보니 사진에서 본 집 풍경은 좋게 보이는 곳만 찍어와 편찮은 듯했으나 실제로는 방 한가운데 기둥이 있고 천정도 낮아 컴컴하고 크게 실망했다.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친정어머니가 “다 팔자러니 하고 살아라!”고 해서 참았다.

남편은 아버지 안상봉(사망) 씨와 어머니 정정희(사망) 씨의 3남 3녀 중 맏이였다. 중학교 졸업 후 현대브러쉬시스템 공장에 다니며 농사를 지었다. 그 후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다니다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여름에는 화촌면 외삼포리

그러나 술을 전혀 못 마신다던 남편은 자주 술을 마시고 병원을 드나들며 그를 힘들게 했다. 지금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는 홍천읍내에 일하러 다니기 위해 교통수단이 필요해 2006년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득했고 승용차를 구입해 계속 일을 했다. 2004년부터 10년간 홍천읍내에 있는 영안모자 홍천지점에 다니며 휴대폰조립업무를 했다. 그 후 화진화장품에 1년 다녔고, 2016년부터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자체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일하며 남편과 함께 농사도 짓고 있다.

남편은 임대농지를 포함해 100여 평의 밭에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여러 농작물을 다 잘 키우고 있는데, 특히 100평의 비닐하우스에 고추농사를 잘 짓고 있어 재작년부터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수시로 방문해 관찰하고 우수사례로 사진을 찍어가기도 한다. 그는 “남편은 농사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51)

홍천군주차관리사무소

홍천군 홍보대사 역할, 자부심 느껴 매사에 최선을 다해

홍천군주차관리사무소(소장 허남석)는 설립 당시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다가 6년 전부터 홍천군에서 인수하여 현재 39명의 직원(주차관리원 36명, 사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내 지역을 1지구~33지구로 나누어 직원들이 매일 다른 지구에서 순환 근무하는 형태이다. 근무연령대는 40대부터 70대(최고령자 78세)이며, 직원들 중 80% 이상이 장애인 및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형태는 무기직(기간제)과 계약직(매년 재계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근무 후 전원이 사무실에 모여 일일결산(당일 징수분 입금)을 한 후 6시 30분경에 퇴근한다. 주차관리원들은 사무실에 모일 때마다 소장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서비스교육을 상호 실시

하며, 홍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광객이나 11사단 신병교육대에 면회 온 가족 등이 맛 집, 관광지, 길 등을 물어볼 때 정성을 다해 안내한다. 홍천소방서에서는 이들을 지킴이로 위촉해서 근무 지구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칭찬릴레이를 시작했다.

허남석 소장이 이병직(71) 상조회 회장을 칭찬했다. 2014년에 입사한 이 회장은 홍천태생으로 3년차 상조회를 이끌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조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족과 같이 지내며 화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하루를 친절하게 무사고로 근무하자는 덕담을 나누고 “서로 존경하자. 싸우지 말자.”고 항상 강조하고 혹여 직원들이 싸울 때면 아버지 같이 토닥거리며 화해를 시킨다. 직원들의 애경사를 일일이 챙겨주고 따뜻하게 이끌어주고 소장과 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매사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줘서 모든 직원들이 믿고 따른다. 주말이면 조

기축구에 나갈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으로 14년, 홍천읍의용소방대에서 30여 년간 봉사했다.

이 회장은 한종욱(69) 상조회 부회장을 칭찬했다. 2014년에 입사한 한 부회장은 회장과 함

자’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손님을 대할 때는 편하게, 좋은 이야기만 해서 손님을 기쁘게 하고, 손님이 돌아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일만 있으세요.’라고 말한다. 직원들이 소장 이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직장이 있어 자립할 수 있어 부부가 행복해서 아침에는 출근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일찍 출근한다고 한다.

그는 “광주에서 홍천에 관광 왔던 손님한테 칭찬 전화를 받았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윤순옥(52) 상조회 감사를 칭찬했다. 2007년에 여성주차관리원으로 처음 입사한 윤 감사는 여직원과 남직원들 사이의 교량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쾌활한 성격으로 회식 때면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을 도맡아 한다. 어려운 직원들의 단추도 달아주고 차량이 필요할 때는 차도 태워주고 팔이 불편한 직원에게는 장갑도 챙겨주는 배려 만점의 직원이다. 직원들 간에는 가족과 같은 가족애가 형성되어 눈비가 올 때는 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줘서 서로 위로가 많이 된다. 토리숲 인근에 살면서 축제 때마다 홍보요원 역할을 자진해서 한다. 그는 “고객 중에는 어이! 야! 돈 받아가! 등 반말을 해서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홍천의 홍보대사다. 우리는 거리의 꽃이다’고 생각하며 더욱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은 “건강을 지키며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홍천의 최 일선에서 홍천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면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우리로 인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이병직 상조회장



한종욱 상조부회장



임선빈 운영위원장



윤순옥 상조회감사

이병직 상조회장 - ‘항상 존경하자. 싸우지 말자’ 따뜻한 아버지 역할

한종욱 상조부회장 - 주변 청결 유지 힘써, 친절함과 자기관리 철저

임선빈 운영위원장 - 칭찬전화로 보람 느껴, 직장이 있어 부부 행복

윤순옥 상조회감사 - 최초 여성관리원, 홍보요원 자진 등 배려 만점

게 직원들의 애경사를 세심하게 챙겨주며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소장의 덕담이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해서 직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근무지 주변의 청결유지에 힘쓰도록 독려한다.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퇴근 후에는 강변에서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 동료들이 본받을 점으로 꼽고 있다. 가장 기뻐던 일은 부산에서 11사단 신병교육대에 면회 온 가족에게 맛 집, 관광지(홍천온천, 수타사 등) 등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라고 한다. 입사 전에는 식당운영을 10여 년간 했고 터널공사 생활도 6년간량 한 경험이 있다.

한 부회장은 임선빈(66) 상조회 운영위원장을 칭찬했다. 아내가 7년여 동안 투병 중이어서 손수 아내의 식사를 준비하고 보살피는 중에서도, 2015년 1월에 입사해서 직원 애경사가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챙기고 있다. 근무 시에는 실질적인 봉사계획을 세워서 ‘손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보내드리

독자기고



김관식

홍천소방서 구조구급담당

금년도 장마는 6월 29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으로 빠르게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장마의 특징은 기간이 점점 줄고 강수량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에서 올 여름 장마는 넓은 지역에 걸쳐 고르게 퍼붓기보단 국지성호우로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이 쏟아 질 거라고 예측했다. 그렇기에 예년보다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매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6월 29일부터 시작된 장마와 이번 태풍(쁘라삐룬)으로 전북 군산시에 506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남 여수는 최대풍속 31.4%(시속 113km)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장마와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100%로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청취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 시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때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 하여야 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품들을 사전에 준비한다. 응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풍수해 관련 장비 긴급점검 및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및 산사태 예상지역과 공사장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우리 집에 비가 새는 데는 없는지, 하수도는 잘 뚫려 있는지 사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보과악 및 대피요령 숙지 등 재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119 신고가 빠른 대처와 피해 최소화에도움을 준다.

올 여름에는 사전준비, 점검 및 적절한 대처로 장마와 태풍 등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국민의 안전이 잘 도모됐으면 한다.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위한 사전준비 철저

우선,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집중호우, 침수(저지대), 산사태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위협정보를 수신

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핸드폰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홍천소방서는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과 관련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신속 대응을 통한 군민의

독자기고



김종숙

홍천읍 태학리

내가 사는 홍천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나란히 있다.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다. 이

유는 5년째 휠체어를 타고 노인복지관을 지나다녀야 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은 않았지만 노인복지관을 지나고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식사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1938년 생으로 올해 81세이다. 그러나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산다.

2016년 여름 조심스럽게 노인복지관에 들러 회원증을 받았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찾던 중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있어 2017년 10월 신청을 했다. 두려움이 존재했고 장애인이 혼자 일반인 사이에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등이 몰려왔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다.

복지관과의 거리는 휠체어로 20분 거리였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프로그램이 하모니카반이었다. 겨우 음을 따라 곡을 배울 때 쯤 작은 사고로 중단했으나, 어느 지인에 의해 다시 공부할 것을 권유받아 이번 참석한 프로그램은 약용식물관리사반이었다.

반원 중 나이도 가장 많고 장애인인데 힘들지 않겠냐 했지만, 노인복지관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주었다. '장하세요. 열심히 하세

했고, 자격증 취득과 함께 발효소관리사 자격증 반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발효소관리사 또한 회기를 거쳐 한국자격개발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고 그 기분을 이렇게 지면으로 알리고 싶었다.

오늘도 난 나에게 칭찬한다. 내 몸아 고맙다. 내가 바쁘다고 무시하며 살았는데 몸아, 마음아 고맙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색깔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저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심한 장애인이라는 굴레에서 나는 벗어났다.

10여 년 동안의 불우한 시간들을 뜨거운 태양에 날려 보내고 오늘도 노인복지관을 다닌다.

새로운 도전으로 불우한 시간들 날려 보내

나는 강원도 재향군인회에 제1호 간호장교였고 보건진료소장, 강원 적십자와 가정간호, 노인간호 강사였기에 자신감이 있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친구도 없이 지내고 있으며, 앞뒤 산으로 되어 있는 울창한 낙원에 살고 있지만

요. 힘내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누군가 말했다.

새벽은 하루 두 번 오지 않는다 고... 홍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